"태어나기 이전 당신은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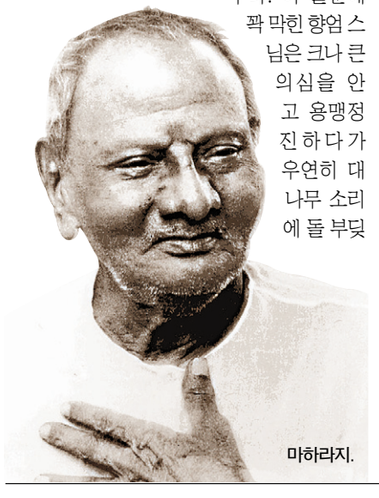
'담배가게 성자' 마하라지의 마지막 가르침

"태어나기 이전의 당신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은 '부모미생전 본래면목(父母未生前 本來面目)' 화두와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 사람의 진실한 본성 또는 불성을 묻는 이 화두는 위산영우 선사가 향엄지한 스님에게 던진 질문에서 유래했다. 어느 날 위산 선사가 경학을 통해 진리를 깨달은듯이 자부하던 향엄 스님을 불러 놓고 이렇게 다그쳤다.

"자네가 평소 경전을 읽었거나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그런 것이라면 젊은 자네가 나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아직 동서도 가리지 못하던 때의 너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어디 한번 말해 보라."

이것이 바로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이란 화두다. 이 질문에 꽉 막힌 향엄 스님은 크나 큰 의심을 안고 용맹정진하다가 우연히 대나무 소리에 돌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찰나 화두를 타파하게 된다.



마하라지.

향엄 선사처럼 구도자들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당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스승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선사(禪師)일 것이다. 그런데, 인도에 이러한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 수행자들을 뿌리와 근원으로 되돌리는 명상가가 있다. 바로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Nisargadatta Maharaj)이다. 선(禪)과 가장 유사한 가르침을 전한 그는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으로 더욱 유명한 성자 라마나 마하리쉬(Bhagavan Sri Ramana Maharshi)의 제자이기도 하다.

20세기 인도가 낳은 성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엮은 <담배 가게 성자—마하라지의 마지막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책세상)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말기에 후두암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설법을 계속했던 마하라지의 최후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어 '진리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1982년 출간된 이후 전 세계 구도자들의 고전이 되어왔다. 16년만에 새롭게 번역 · 출간된 <담배 가게 성자>는 해공명상센터를 이끄는 무위해공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마하라지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명상무용가 홍신자씨의 추천사가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마하리지는 "태어나기 이전의 당신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진리에 대한 통각은 오직 통각 하고자 하는 자아가 사라질 때, 말하자면 자신을 실체라고 믿는 '찾는 자' 자신이 사라질 때에만 가능하다"며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

"태어나기 전의 자네는 무엇이었나? 그 상태에서 어떤 필요나 바람이나 욕구가 있었을까? 실재에 대한 것이든 자유나 해탈에 관한 것이든 그런 바람이 있었을까? 자네의 그 이전은 일체요, 절대적 현존이요, 상대적 부재의 상태야. 그것이 자네가 바라는 진실한 모습이요 본성이지. 이것의 나툼이 의식이고, 내가 있음이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태양의 반영이 태양이 아니듯 그것이 절대적 현존일 수는 없는 거야."

'네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란 '나(ego)'라는 개체적 인식이 없는 상태, 즉 무아(無我)의 경지를 말한다. 현상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내가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전체성이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닫기만 한다면 바로 참나인 '절대성'의 상태란 것이다. '절대'란 색(色)과 공(空)이란 상대성의 양쪽을 모두 포괄한다. 다만, 개체를 나라고 착각한 순간 개체의식에 속아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시비분별하는 의식구조 때문에 진리의 전체성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마하라지의 가르침이다. 그의 설법은 오랫동안 참선공부를 하다가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심정의 구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과 발심의 동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담배가게 성자 | 발세카 지음, 이명규 송영훈 옮김 | 책세상 |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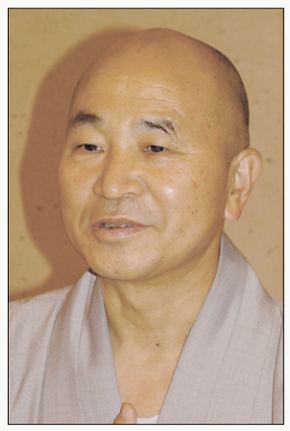
김성우 기자

반야바라밀 기도는 참된 수행

혜담 스님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편저

"기도를 성취하여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대립하는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하고든지 대립한다는 것은 그 대립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과 통하는 길을 막는 벽이 됩니다."(광덕 스님 법문)

중국의 옛 공안 가운데 '장공흘주(張公吃酒)에 이공취(李公醉)라'는 화두가 있다. '술은 장 서방이 마셨는데 취하기는 이 서방이 취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본래 하나의 진리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야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게 기도의 이치인 것이다.



혜담 스님.

이와 같이 감사, 찬탄,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진리생명체임을 잊지 말고 대립과 갈등을 털어버려야 기도 성취를 할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반야바라밀 기도수행법의 정수를 담은 책이 나왔다. '광덕 스님의 반야사상의 정수'란 부제를 단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불광출판사)가 그것.

동산 선사의 맥을 이은 율사이자 선사요, 대포교사로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 우리 시대의 보현보살로 추앙받은 광덕 스님은 이 책에서 "법성진리의 힘을 활용하여 본래 완전한 진리의 공덕이 자신과 환경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요, 기도야말로 참다운 수행"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자기가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본래 갖추고 있는 진리를 회복함으로써 일체를 성취하는 것이요, 생활 속에 진리를 구현해가는, 행복을 창조하는 수행이다."

이 책의 편저자인 혜담 스님(경기 광주 각화사 주지)은 작년에 뇌출혈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기도수행'이야말로 '만인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마하반야바라밀' 기도수행을 통해 큰 병고에서 벗어난 혜담 스님은 "퇴원 후 1년여 동안 은사이신 광덕 스님께서 생전에 법문하신 반야바라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려 뽑아 이 책을 엮으면서 광덕 스님의 기도법문이야말로 반야사상의 정수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 | 혜담 엮음 | 불광출판사 | 1만1000원

김성우 기자

수행법 전반 · 장단점등 다룬 불교입문서

독자에 알맞는 수행법 선택할 기회줘

10여년 전부터 위빠사나와 염불, 간화선 등 수행법 관련 서적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하지만 수행법 전반에 대한 입문서는 아직 보기 드문 상황이다. 충남대 철학과 김방룡 교수가 쓴 <불교수행법>(민족사)은 불교 수행법 전반을 쉽게 파악해 독자들이 알맞은 수행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책에는 조계종 수행법의 근간인 조사선과 간화선을 비롯해 지관법(止觀法), 위빠사나, 간경, 지계와 참회, 염불, 절, 주력, 사경(寫經), 사불(寫佛) 등 대표적인 수행법을 다루고 있다. 각 수행법의 특징과 교학적인 근거는 물론 누가 수행법을 체계화했고 현재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각 수행법의 장단점과 상호 연관성까지 자세한 안내를 해준다. 저자는 불교수행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한 발심(發心)이 전제돼야 하며, '불교'와 '불교 아님'을 구별할 수 있는 교학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 판별기준은 '부처님이 제시한 연기법, 중도법, 무아(無我), 공(空)의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가?', '깨침을 통해 동체대비를 실천하게 하는가?' 등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교수행법 | 김방룡 지음 | 민족사 | 9500원

김성우 기자

미당 ·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기언 · 박민규 작품등 수록

제9회 미당 ·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이 중앙books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우리 현대문학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미당 서정주 선생과 황순원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어, 한국정신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심화 ·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된 미당 · 황순원문학상은 지난 1년간 창작, 발표된 모든 시와 중 · 단편을 대상으로 한다. 2009년 미당문학상 수상작인 김언 시인의 '기하학적인 삶'은 기하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우리의 모순된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시다. <2009 미당문학상 작품집>에는 김언 시세계를 감상할 수 있도록 10편의 자선시를 비롯해 송재학, 김신용, 이영광, 정진규, 김근, 김행숙, 조연호, 김경주, 이근화 등 미당문학상 최종심에 오른 문단의 대표적 시인들의 작품도 함께 실려있다. <2009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말기암 판정을 받은 40세 독신남의 귀향을 소재로 한 수상작 박민규 소설가의 '근처'를 비롯해 은희경, 전성태, 배수아, 김애란, 김중혁, 김경욱, 김사과, 김숨, 강영숙 등 최종심에 오른 후보작품 9편도 실려있다.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사는 즐거움	보경	뜰
3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4	날마다 웃는 집	법륜	감영사
5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6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7	인과경	현담	선
8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9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10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